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곱추 노인' 임약덕 할머니. 최근 앓고 있는 피부병 중세를 성북노인복지관 할머니 후원팀장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하방 독거 곱추노인 임약덕 할머니

햇빛보며 살아봤으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달 정부 지원금 25만 2천원. 월세비 15만 원과 공과금 4만 원을 치르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고작 6만 원뿐. 병명은 '곱추'. 전문의확용으로 말하면 '아급병'. 지하방에 10년 넘게 살다보니 여기에 보태진 병은 심한 천식과 피부병, 게다가 관절염에 좌안 녹내장, 굽은 허리로 만성 소화불량에 복부팽만 증. 독거노인으로 나이는 68세... '곱추 노인' 임약덕 할머니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겨울이 시작할 무렵 임 할머니는 죽다 살아났다. 별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 문 앞을 딱 하니 지키고 서 있는 연탄보일러. 연탄가스가 고스란히 방안으로 흘러들어오기에 충분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있던 임 할머니는 방문 급식하면 봉사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가까스로 살아났다. 또 연탄가스가 들어올까봐 임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 내내 창문을 반쯤 열고 살다보니 기기와 천식을 몸에 달고 지냈다.

천식 대처 호흡도 곤란

따스함 따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있는 어두운 방안. 기웃거리기는 이웃조차 없다. 자식이 없는 임 할머니. 어려서부터 곱추병을 앓아 아예 결혼도 안했다.

이뿐만 아니다. 1층 화장실을 다녀오다 발을 헛디뎠다. 다리가 뻐졌다. 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다 결국은 계단에서 떨어져 지금은 바깥 출입조차 쉽지 않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계단 굴러 운신 불편

연신 다리를 매만지는 임 할머니는 제기동 독방 집에서 살던 때가 그림자라고 한다. 그나마 지팡이라고 잡고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 할머니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지하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남은 여생동안 햇빛이라도 제대로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임 할머니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주·서·서울 성북구 종암2동 1-41번지 전화: 02-941-8574

계좌번호: 002295-02-011(예금주 임약덕) 김철우 기자

계좌번호: 002295-02-011(예금주 임약덕) 김철우 기자

4월 27일 (토)
■인한 스님 '초청법회' =경기불교대학은 동국대 명예교수 인한 스님 초청 법회를 오전 10시 수원 포교당 3층 만보전에서 봉행한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유자재 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면 어려움 일이 없다"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31)255-2692
■해명보육원 '바자회' =장애어린이 등 불우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해명보육원이 오전 9시 보육원에서 알뜰 바자회를 개최한다.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을 내다 팔며 불우이웃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기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린다. (02)802-0358
■광고향기롭게 '선수권회' =광고향기롭게 주말 시간을 이용, 일반 불자들이 참석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 길상사 스님들이 불교상식, 예불, 참선 등의 기초를 친절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 토요일 오후 3시에서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3만원. (02)741-4696
■정토회 '특강 수련회'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특강 수련회를 마련한다. 무변심 법사의 '새로운 나를 찾아서', 유수 스님의 '정토를

일구는 사람들', 법륜 스님의 '죽 문득죽', 분수 법사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등 강의가 1박 2일 동안 펼쳐진다. 세면도구와 개인 컵은 각자 준비. 복장은 편하게. 참가비는 1만원. (02)587-8994
■나가자불자회 '사찰순례' =신행단체인 나가자불자회가 마련한 불자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신심도 다지고, 불자들끼리 친목도 다질 수 있어 인심이조. 첫날에는 영월 사자산 범종사를 둘러보고 둘째날에는 흥천 연화사 사시예불에 참석할 예정. 출발은 오후 1시 서초구민회관 앞. 참가비는 2만원. (011)712-6674
4월 28일 (일)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서울 불교청년회가 마련한 제14회 전

일구는 사람들', 법륜 스님의 '죽 문득죽', 분수 법사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등 강의가 1박 2일 동안 펼쳐진다. 세면도구와 개인 컵은 각자 준비. 복장은 편하게. 참가비는 1만원. (02)587-8994
■나가자불자회 '사찰순례' =신행단체인 나가자불자회가 마련한 불자들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신심도 다지고, 불자들끼리 친목도 다질 수 있어 인심이조. 첫날에는 영월 사자산 범종사를 둘러보고 둘째날에는 흥천 연화사 사시예불에 참석할 예정. 출발은 오후 1시 서초구민회관 앞. 참가비는 2만원. (011)712-6674
4월 28일 (일)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서울 불교청년회가 마련한 제14회 전

을 했던 벽송사와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가락국 10대왕 구형왕의 등무덤을 찾아서...
경남문화연구원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창원시청 앞. 참가비는 2만원. (055)267-6700
4월 30일 (화)
■우룡스님 '초청법회' =대전 보현불교대학은 울산 학생선원 조실인 우룡스님을 초청, '행복에 이르는 길' 주제로 법회를 오후 7시 불교대학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인연을 살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우룡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어보자. (042)624-6555

선원 대소사 도맡아 1인10역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칠보선원 김진주 총무

도반들은 김진주 보살(52)을 '칠보선원의 꽃'이라 부른다. 법명이 칠보화(七寶花)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칠보선원의 모든 것은 김 보살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방일 등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불교대학 운영 및 재정관리 등 어느 것 하나 김 보살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주지 효정스님은 그런 김 보살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이든 상의한다. '칠보화'라는 법명은 효정스님이 김 보살의 그런 막중한 역할을 인정해 지어준 것이다.

레는 칠보선원에 나온다. 매주 수,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 열리는 불교대학과 목요일에 열리는 시민선방에서 경전공부와 참선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 때는 공부하는 신도 중의 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부가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원의 총무로서의 소임은 물론 주



◇불교대학 강의를 끝낸후 김진주보살(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효정스님 및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칠보회·합창단 조직위해 동분서주

선원 일 매듭되면 본격 수행할 생각

9일 서울 강남 삼화불교대학 4층 칠보선원. 10여명의 신도들이 기초 교리 강의를 듣고 있다. 불교대학쯤 되면 적어도 수강생이 50~60명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인원이 적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칠보선원이 이곳에 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 개원한 지 불과 9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어느 절과 신도 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사찰 운영은 어느 절 못지않게 알차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김 보살이 있다.

현통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의정부 호암사에서 본격적인 신행 생활을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운 능인선원 불교대학에도 다니며 불교 공부에 매달렸고, 해인사 등 전국적인 절들을 찾아다니며 철야정진도 했다. 그러던 차에, 평소 김 보살을 아끼던 호암사 주지 해우스님으로부터 특별(가)을 받았다. 도반스님인 효정스님이 강남에 포교당을 개원하니, 그곳에서 공부하며 효정스님을 도우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와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염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을 연지 9개월밖에 안됐지만 칠보선원은 이제 어엿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선원 신도인 미래심 보살(44)은 "우리 선원이 이만큼 자리잡은 것은 김 보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보살은 한 달여 전부터 자원봉사인 '칠보회'와 합창단을 조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준비 없는 신행생활은 그 의미가 반으로 줄어줄 수밖에 없다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다. 합창단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에게 응송공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보살은 늘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염송하고 관음정근을 한다. 10년

추천의말

효정스님 칠보선원 주지

우리 포교당은 개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불교대학과 시민선방을 운영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문화강좌를 계획하고 있고, 신도들 스스로 자원봉사회와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얼마 후면 명실상부한 도심포교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일궈낸 성과와 앞으로 진행될 일들은 사실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김진주 보살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해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신도들을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내놓아 '아이디어뱅크' 역할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 보살은 우리 포교당의 '꽃'입니다.

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원 일들을 모두 이루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행에 나서볼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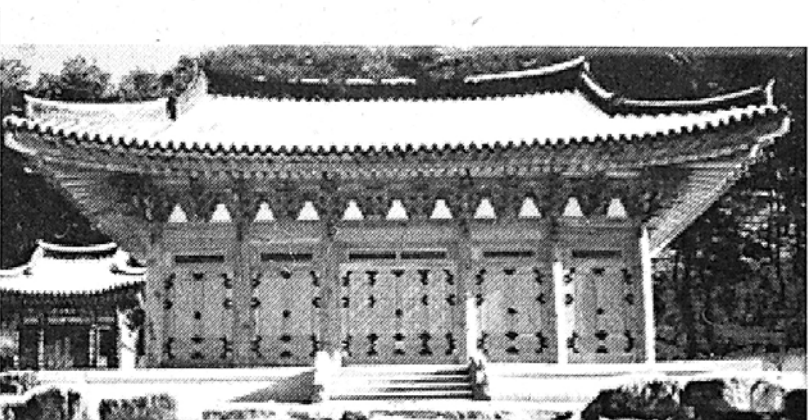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언문

천추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전강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신시에 인도교상미국의 우전왕(優填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북덕구축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추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고속버스 : 서울-상주
- ▶택시이용
- ◇기차편 : 김천-상주
- ▶택시이용
- ◇자카용
-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큰시밭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